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13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4.8.18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전정민 전도사
입례송 "내 주님 서신 발 앞에".....다같이

♩ = 64

F F A/C# Dm7 Cm7/A Gm7 G/B Bb/C C7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F/A Cm7 F7 Bb Gm7 C7 F Dm7 Gm7 Bb/C F

주님 서신발앞 에 나-옆드 려 경배합니 다 예배 합니 다

성서교독 시편 142편다같이

인도자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성도들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인도자 오른쪽을 살피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성도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인도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성도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인도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성도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인도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같이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참회기도 나,이웃,교회,세상다같이
사죄의 확신다같이

인도자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다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빌립보서 4장 10-20절다같이
말씀묵상.....다같이
말씀권면.....일체의 비결은임영섭 목사
묵상기도.....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다같이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다같이

감사찬양.....“하나님의 부르심”다같이

결단과 축복.....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빌4:10-12)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묵상노트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 = 65

Words & Music by
손경민

하나
작은

A E/G# F#m C#m/E D A/C#
 님의부-르심-에는-후회하심이-없네- 내가이자리-에 선것도-주의
 나를부-르신-뜻을-나는알수없-지만- 오직감사와-순 종으로-주의

Bm7 E7 A E/G# F#m C#m/E
 부르심-이라- 하나님의부-르심-에는-결코실수가-없네- 나를
 길을가-리라- 때론내가연-약해-저도-주님날도우-시니- 주의

D A/C# Bm7 E7 A
 부 르신- 하 나 님의- 신실 하 심을-민 네-
 놀 라운- 그 계 획을- 나는 믿 으며-살 리-

D/E A A/C# D F#7
 날부 르신뜻- 내 생 각 보 다 크 고 - 날 향

Bm7 B/D# 3 E C#/F
 한 계획- 나의지혜로 측 량못-하 나- 가 장

F#m A/E D Dm6 A/E Bm7 E7 A
 좋은길로 - 가장 완전한-길로- 오늘 도 날 이끄심-민 네
 신실 하 신 주를찬-양 해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 성경과외	목요일 오전 10:30 ~오후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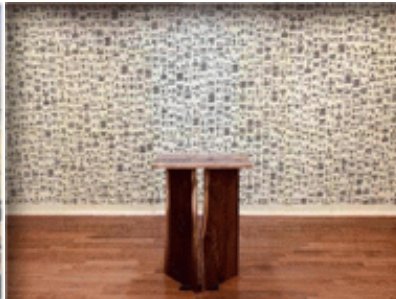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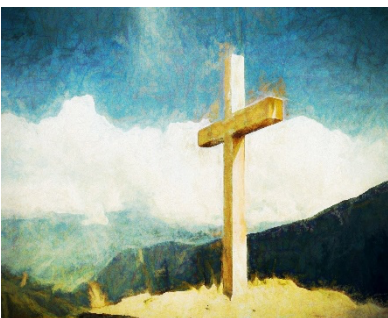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임영섭 목사님 말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영섭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주일도 은혜가운데 살아가는 길목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목사님 성지순례 사역

8.1일부터 오늘까지 담임목사님께서 튀르키예 성지순례 사역을 감당하고 오실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혜가운데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접수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청년 선교사

청년 선교사 조성권 형제를 위한 중보

성권 형제가 미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성실히 신앙과 학업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십시오.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청년성경과외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금요일 사모공동체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

- 참여문의: 050-6701-4014